



| | |
|--|--|
|  <p>중국전문가포럼</p> <p>http://csf.kiep.go.kr/</p> <p>2018. 10. 05.</p> | <p>「이슈&트렌드」</p> <p>안후이성, 인터넷 플러스 의료헬스 육성정책 발표</p> <p>작성 박진희 전문연구원(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)</p> |
|--|--|

- 안후이(安徽)성 정부는 9월 19일 ‘인터넷 플러스 의료헬스 육성정책(关于促进“互联网+医疗健康”发展的实施意见)’을 공포함.
- 중국정부는 2015년부터 모바일 인터넷·빅데이터 등의 IT 기술과 경제·사회 각 분야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는 인터넷 플러스 정책을 추진 중이며, 의료헬스 분야는 인터넷 플러스 정책 중점 추진 분야 중 하나임.
 - 올해 4월 중앙차원의 인터넷 플러스 의료헬스 육성정책 가이드라인(关于促进“互联网+医疗健康”发展的意见)이 발표된 이후 안후이성을 비롯한 각 성급 단위가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담은 문건 발표 중
 - 광둥(广东), 간쑤(甘肃), 지린(吉林)성 등 일부 지역이 선도적으로 6~8월에 발표
 - 9월 14일 중앙정부가 인터넷병원 관련 제도¹⁾를 발표함에 따라, 각 지방정부의 인터넷 플러스 의료헬스 육성정책이 연이어 발표될 것으로 예상
- 동 정책에 따르면 안후이성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△ 온라인 의료서비스 확대 △ 온라인 약품 유통 △ 의료빅데이터 활용 연구기반 구축에 노력하는 한편, 로컬기업의 강점을 살려 △ 의료용 AI 연구개발 △ 스마트 병원 건설에 특히 노력할 계획
- 2020년까지 대형 공립병원에 원격진료·원격협진 등이 가능한 온라인 의료서비스 시스템을 마련하고, 2019년까지 성(省) 내 모든 의료연합체 간(医疗联合体) 원격협진 시스템 구축
 - 온라인으로 처방된 경증질환(常见病) 및 만성질환용 의약품이 약사 확인을 거쳐 제3기구를 통해 배송될 수 있도록 허용
 - 중국과기대(中国科学技术大学)에 의료빅데이터 연구원을 설립해 중부지역 의료빅데이터 중심으로 발전
 - 의료영상 판단·병리(病理)분석·협진에 AI 기술을 활용하는 등 AI 임상진료 확대
 - 안후이성에 본사가 소재한 ‘아이플라이텍(iFLYTEK)’은 중국의 음성인식 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며, 중국 과기대와 협력해 로봇 개발에도 활발
 - 아이플라이텍의 ‘로봇 샤오이(晓医)’는 2017년 중국 의사 자격증 시험을 통과하기도 함.

1) 「互联网诊疗管理办法(试行)」, 「互联网医院管理办法(试行)」, 「远程医疗服务管理规范(试行)」. 인터넷병원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·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진료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병원으로, 중국정부는 최근 발표한 동 제도를 통해 인터넷병원의 원격의료 서비스 방식 및 범위, 설립 요건 등을 명시함.

- 2020년까지 2급 이상 공립병원 50% 이상에 스마트병원 시스템 구축

표 1. 안후이성 인터넷 플러스 의료헬스 육성정책의 주요 내용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|
| 온라인 의료서비스 확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부 경증질환(常见病)·만성질환 재진에 의사-환자 간 원격진료 및 온라인 약 처방을 할 수 있는 인터넷병원 설립 허용 - 의료기관이 다른 기구와 협력해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원격협진, 건강 상담, 건강 관리서비스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- 2020년까지 3급 이상 공립병원 온라인 의료서비스 전면 실시 |
| 병원 간 온라인 의료협력 확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각 급 병원 간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한 원격협진, 정보 공유 확대 - 2019년까지 모든 의료연합체(医疗联合体) 간 원격협진 서비스 시스템 구축 |
| 온라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의무기록(EMR) 시스템 활용 확대 - 고혈압, 당뇨병 등 노인질환 온라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- 의료 빅데이터 활용 유행성 질환 예측 분석, 전염병 관리 강화 |
| 온라인 약품 유통 확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온라인으로 처방된 경증질환 및 만성질환용 의약품이 약사 확인 거쳐 제3 기구를 통해 배송될 수 있도록 허용 |
| 온라인 의료교육 강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온라인을 통한 의학교육 및 학술교류, 건강상식 보급 확대 |
| AI 활용 확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의료용 AI 기술, 로봇, 대형 의료설비 연구개발 - 의료영상 판단·병리(病理)분석·협진 등에 AI 음성인식기술 활용하는 등 AI 임상진료 시스템 확대 |
| 스마트병원 건설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인터넷·AI·사물인터넷·빅데이터 분석 등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병원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병원 관리 수준 제고 - 2020년까지 2급 이상 공립병원 50% 이상에 스마트병원 시스템 구축 |
| 스마트의료 혁신 발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부지역 의료 빅데이터 센터 구축 - 중국과기대에 의료빅데이터연구원 설립 |

주: 3급병원은 500병상 이상, 2급병원은 100-499병상 보유

자료: 「关于促进“互联网+医疗健康”发展的意见」.

□ 인터넷 플러스 의료헬스 육성정책을 기반으로 중국 각 지방에서 원격 의료 서비스가 확대되고, 안후이성 등지에 의료용 AI 연구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이는 바,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분야의 협력을 모색하는 한편, 중국이 우리보다 선도적인 분야에서는 중국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.

- 서울대병원·SK 합작회사는 중국 우시(无锡)의 병원에서 당뇨병환자 대상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²⁾
- 한국은 원격 의료 분야에서 중국보다 제한이 많은 상태로, 현재 원격 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 **CSF**

표 2. 한·중 원격 의료 허용 현황

| 구분 | 중국 | 한국(현재) | 한국(검토 안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|
| 원격 협진 (의료인 간 상호 기술 지원·조언) | 허용 | 허용 | 허용 |
| 원격 진료 (의사·환자 원거리 진단·처방) | 제한적 허용 (경증질환·만성질환 재진) | 금지 | 제한적 허용 (격오지 군부대 장병, 원양선박 선원, 도서·벽지 주민 등) |

자료: 저자 작성.

2) 중앙일보, 「연세대의료원 등 대학병원, 팍 막힌 의료규제 피해 해외로」, 2018. 8. 4.